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집회서 3:2-6. 12-14	제2독서	골로새서 3:12-21	복음	루카 2:41-52
--------	------	------------------	------	--------------	----	------------

◎ 말씀 < 성가정을 이루는 가족 >

제1독서 집회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애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요양원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가끔은 자책을 합니다.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한 곳을 둘이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 주는 것이니 사람이 풀지 못한다.”, “자녀의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우리는 솔하게 이런 말들을 들어왔고 더 좋은 말들도 많이

많이 듣고 삽니다. 손희송 주교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은 “①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사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② 사랑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③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다.” 고 하십니다. 혼인 예식서를 보면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존경은 둘째 치고 존중이라도 합니까? 존경은 과하고 존중이라도 받아봤으면 하지 않습니까? 복음 말씀은 한 바탕 부모 속을 태운 다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순종하며 지내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정의 일원인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일 자	전 령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1일(화)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오전 11시	교 무 금 주일헌금	\$ 4,780.00 \$ 1,137.00
1월2일(수)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215.00 \$ 220.00
1월3일(목)	주님 공현 대축일 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기타수입	\$ 384.00 \$ 300.80
1월4일(금)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 기념일	오후7시30분	성탄밤(24일) 성탄낮(25일)	\$ 720.00 \$ 1,382.00
1월5일(토)	성 존 노이만 주교 기념일	오후7시30분	합 계	\$ 9,138.00
1월6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4명 성인: 198명

교무금 봉헌자 안병훈.이경희(11-12월)김옥동.김근수.김주원(10~12월)서량(8-12월)이은로(5-12월)김은수(10-11월)임복순(8-9월)장원석(1-12월)이원건(11월)김선식.김기환.김계숙.김에릭.임채봉.안기창(12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평소 로사를 연모하던 요셉이 하늘 맑던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 고백했습니다. “저… 로사씨, 제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자 로사는 비로소 요셉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신비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실 때라야 우리는 하느님의 속 깊은 생각과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 라고 하지요. ‘계시’란 하느님께서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 세상에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몹시 바라셨던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믿음의 선조들과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서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조리 내어주셨고,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 -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을 뵈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우리가 고독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겨워할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 바로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 1,1-2)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장.로사리아	연	손남산.러시아의 영혼	손창식.돈보스코 가족
연	이순애.엘리사벳	박.토마스			
연	최상엽.야고보의 영혼	서.바오로.안나	연	차상호의 영혼	김효주아녜스

간장종지

◎새순◎
 들립니다. 두런두런 내려오시는 별님들 목소리
 들립니다. 별들이 뽀얗게 녹아서 흐르는 물소리
 보입니다. 아기를 안고 가슴을 열어 젖을 물리는 어머니
 뵙니다. 햇살을 빨며 파릇파릇 문을 열고 나오는 새순들

한광구 요셉 · 시인/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p> <p>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